

제주사설매국에
 일문관바람운님이소사나니
 주목상토외을망건,숙구리당썰에
 산수림흙전립은일문대단안을받고
 다공단불님스에소공단췌음스에
 왕구슬밀화스에해오래비헛튼짓에
 동방사췌봉의바지,북방사췌봉의저고리
 남비단섭조쾌자,수라췌통전대라
 안음가득활을받고,봉어눈을부릅쓰고
 삼각수를거스리어,살하나를내쏘으면
 삼천군병이소사나고
 또한살을내쏘으면,삼천군병이돌아들고
 턴문에상통하고,디리에하달하더라
 풍설에들으니,산넘고바다건너만리밧게
 비오너라비오천리,홍토나라홍토천리에
 고산국이라는미색이잇다거늘
 청구름을돌너타고,순간에그곳을이르니
 과연미색이잇는지라,인사를청한즉
 어뎃손임임니가
 제주한라산설매국에
 소사난일문관바람운입니다
 나는고산국입니다
 인사를맞친후에,얼굴을피차보니
 서로반하얏다
 당신을동경하야
 멀길을생각안코,이리차저왔소
 간밤에꿈이매우묘하든니
 오날에당신을맛나는경복을당하얏소
 서로가합자가되여,부부를맺어
 이삼일의행복이지나니
 의외에미녀가또낫타났다
 그것은고산국보담도
 멧배나훌능한턴하절색의처자얏다

저것이누구뇨무른죽
고산국말이,나의동생이외다하거늘
서로인사를난호와
아지망아지방하며,다정히게지내엿다
그러나그째부터,일문관의마음속에는
이삼일의행복이새여지고말엇든
가삼은어두어졌다
일순간이라도고산국의동생을
잊을수업섯나니
그러헌용맹헌영웅의그세는어데를가든고
못보면그리웁고,맞나면어리둔절하야
심신이불안하며,고산국의앞에서는
큰죄인이나되진듯이
무서와서어쩔줄을몰났다
그러나고산국의동생도
혼자일문관을한이업시사랑하얏스되
궤로운마음은꼭일문관과틀님이업섯다
그러나그처자는일문관의궤로움을몰났고
일문관은처자의괴로움을몰났스며
그리워는하면서도
서로맛날때마다,완색은불안하고
나중에냉정하야보인다
이러헌괴로움이이십여일을지나니
일문관은마지막을결심하고
월야의삼경을타서
처자의연헌손목을쑥잡엇다
그러나일문관은
말하여든것도움씩기에풀어바리고
끓은눈물만쑥떨어진다
처자의얼굴에도눈물이줄지여흘넋다
그러나소리쳐울지못헌것만더욱답답하얏다
수십일후에,둘사이에는
도망의밀약이성립되엿다
어두운밤안에청구름을돌너타고
제주령산을이르렀다
밤이새임에,고산국은깨고보니

일문관바람운은기적이업숨에
늦잠을자는가하야
일문관의방안에가고보니업고
서늘한찬바람을먹으려고,후원에나나갓나하고
차저보니역시그림자도업다
그러나놀나운것은
일문관의행장이허공중뒸한것이다
고산국은어이업서,할일업시
일문관의행적을의론코저,동생을찾어가니
동생쫓차간곳이업고,행장쫓차업서젖다
고산국은일문관은비록못밧칠까보되
역시뒸문에정통허고,디리에능달헌신인이라
요것들돌이지랄피워도망친것이아닌가하고
마지막의방법으로,명뒸에게축도를드린후에
령기를내들엇다,깃발은역풍을불구하고
한라산을향하야괴운차게번들거리엿다

고산국깃발을쌀아달니여
제주한라영산에이르니
과연동생과바람운이도망하야,부부를맏고
첫사랑에흥취하고잇는지라
분긔충뒸하야,게우살의뽕게로
둘을한숨에사살코저하니
동생되는고산국은안개도술을픽우거늘
먹장갓흔밤이되여
형되는고산국은정신이아득하게되엿다
형은별별도술을부리고
하나님께몇번이나축도를드리나
원래동생의술이능헌지라
검은안개를헛칠길이바이업고
몸을빠쳐날묘책이업거늘
도로혀굴하게되엿다
그리하야동생보고,이잔악허고몰인정헌년아
내가아모리뽕게를들엇든들
너를죽일수잇스며
설혹내가너를죽이려헛든덜

죽일죄를걸머진네년이
형을이런험경에말너죽일수잇는야
죄송치도안이허나,그러나이악녀야
나는너를참아히못죽일터이다
우리서로가해치말기로하야,이안개를거두어라
이리하야일문관바람운이
향남가지를꺾껴다가,층암절벽에찢으니
커다런달이되여,목성을높이들고소리쳐울거늘
밤이새여가며,동방에고은달이소사올음에
비로소완면을분별하게되엿다
고산국이대로하야
이죽일년아,잡을년아
도마우에찍을놈아,금수갓흔바람운아
내가처음의생각에는,너히들을모조리죽여도
억분함은참으로남을것갓더라만은
참아히그럴수는업구나
그러나마녀야,너는내동생이아니라
성을변하야지가로할엿다
나는고산국으로가려허나,남이붓그럽고
단지방향은발가는대로이다
너는너갈데로가거라
나는나갈데로어데든지가리라
고산국은이리하야모든인연을끈허두고
한람으로내려와버리니,지산국바람운은
한라산의백록담해굼운이달굼운이등에유산타가
좌명디를징하려고,천리경걸령쇠를노와보니
웃당근리가조커늘,거게가서보왓다
그러나합당치못함에,다시쇠를세워보니
살오름봉대기가덕합하야
거게다가좌명하야백자열을치고잇섯다

웃서동김봉태라는인간이
지달피웃통에산달피알통황구피두루막에
목좁은약돌기상토지둘너차고
네눈이,목동연이,보말짜기,청삽사리
개네놈을데려서,사농노리를가려고

하얗우에올나보니
살오름상봉에,백자열이쳐잇거늘
백자열은신선이나신인이안이면
두를수업는것인대
수상타하야,쥬쟈에올나보니,그냥잇고
상쟈에올나보아도,역시그냥잇슴애
필연코저것은신위라하야
백보외로가서합수상배하얏다
엇찌헌인간이나,웃서동김봉태가됩니다
무언일로나왔는가
사농노리로왓습니다,엇찌헌신위오니가
설매국에소사난일문바람운이되노라
홍토나라홍토천리,비오녀라비오천리
지산국이되노라
엇편일로,이런곳에네립씩가
옥황상데분부바더
인간의인물구경,인물차지왓노라
네그렷소이가
너는우리에게테운인간이리니
우리길인도를하여라
네황송하오이다
여기서데일가까이보이는데가엇편마을이나
그것은웃서귀가됩니다
저알엿것은하서귀입니다
또저서편것은엇편마을이나
그것은서홍리가됩니다
그러면웃서귀로길인도를하야라
그러나웃서귀를오고보니
좌명지가덕당헌곳이업슴으로
너의집으로동거하야
연석달을류하는것이엇썤냐
대단이황송하오나
인간의집은몹시나루추하옵나이다
몬짓내나고그실먹내나고
화식내나고인간내나고하야
신위가류하옵기에는

넘우나죄송하겠사옵니다
그래도관찬타,네집을가자
잔소리그만두고,사세부득못아가니
참아히동거키는죄송하야
웃당팻에남을비여다가
작으마케집한채를지여놋코
죄송하오나,림시여기게시옵소서
두신위는연석달을잇서본즉
말탄인간보기실코,개짐승보기실으니
우리가여기살수업다하야,김봉태를불너서
우리가너에게은혜를만히씨쳐서,미안허다
몇달후에소식잇슬터이니
그리알고잇스라하야두고찌낫다

이리하야먹고흘이라는궤에이르러좌명하고
연석달을경과하되
결에흘으는시내의물소래와
일면으로울창헌수풀이울적함으로
두신위는새로운좌명지를상의하게되엿다
내종에고산국과는불화하야갈넛스나
우리로는한번만나보는것이도리가당응하며
한번만난후에
좌명터도깊그는것이조타고결명하얏다
고산국은서흥리인물차지로잇섯든바
그에게통지하야,가시머리멧돌로맛나기로하얏다
그레명헌날자에명헌장소로맛나니
고산국이로색을풀지안이하며
어찌하야다시맛나자고나를불넛소
언제든지이모양으로하기보담은
우리가원만이상의하야,지경을갈으고
땅차지인물차리로들어스는것이부당할까
한번인연을아주끈어바렸는데
원만이무엇이며,상의가무엇이라
그러나일문관바람운이강히사정을하니
부득무가내하라듯이,고산국이성을내며
뽕계를날니니,학탐에이르고

일문관바람운이활을쏘니,문섬한돌로일으렸다
거게서고산국말이무가내하요
나는학담을경계하야
서흥골을전양차지할터이니
당신내란문섬이북우알서귀를차지로들어가되
서흥리사람이동흥리혼인못하고
동흥리인간이서흥리혼인못하고
동흥리당한이서흥리못가고
서흥리당한이동흥리못갈테이니
그리알시요

고산국은서흥리로들어가바리고
바람운은지남석결녕쇠를노아보니
하서귀신남상가지에,시완상기조흐매
내려와좌명을한즉
어느인간하나이용토광토안이하얏다
하룻날은우서귀오가종손이발병하야
병세험악하더니
입으로바람운과지산국의사실만단을베풀며
지금우리가신남상가지에와잇스되
본체만체물은체하니,겻심하기짜이업서
그런병을주엇노라
이러하니오가에서는하서귀로날여가서
위선송집에사실을원하얏다
그래송집이솔선했바되여
우알서귀향민이집합하야
당집을설연기로결명하고
남들을무수히버혀다가,당집을지여노왔다
그리하야당한이를명하고,서울로올나가서
월광단,일광단,공당비단,대단,초록명주
은가락주,금가락주,왕구슬,밀화끈을사다가
백매를설연하고,정월초하룻날과세문안대제
이월십오일날영손마지대제
칠월십삼일날마풀님대제
십일월일일생진제기내게되고
후에김봉태는

바람운지산국의공인으로써불은바되여
두신위의부하로들어가서
인간의제명을받게되였다
그리하여두신위는우알서귀본향이되야
좌하고잇섯다

그전불어소남머리,수진포금상황제부인이
웃서귀신남쪽을바라보니
어쩐의외의신위가좌명하야잇거늘
괴리히역여와서,어떤신위뇨
바람운지산국이오이다
무슨일로이곳에오섯소이가
우알서귀인물차지로와소이다
나도하서귀차지입니다
아차실수하얏습니다
당신이하서귀인물차지로잇는줄알엇다면
우리가이럿치를안올터인데
그줄을몰낫슴이다,미안합니다
그러나황제부인은더욱친절히하는말이
나는힘이약함으로
동서으로오는위험을막을수업고
동서의인물을다사릴수업소이다
당신은우알서귀뭇테인민을마타서다스리면
나는룡궁을마타서
가는배오는배,가는바자기오는버자기
가는잠수오는잠수,가는손임오는손임
마타서다스리겟슴니다
황제부인은룡궁으로들어가고
일문관지산국은우알서귀인물차지로들어가서
인간에게제명을밧는다